
출 장 보 고

I. 출장건명: 한·베트남 MOU 체결 및 국제학술세미나 참석

1. 출장목적

- 베트남 농업·농촌발전전략정책 연구소(IPSARD)와 MOU 체결
 - IPSARD는 베트남 농업·농촌발전부(MARD) 산하 정부연구소로서 농업·농촌 관련 정부정책 및 전략 등을 수립하는 싱크탱크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우리 연구원과의 연구협력 강화로 상호 발전 도모
- 한·베트남 국제학술세미나 참석
 -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한 양국 농업·농촌부문의 이해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해외농업·농촌협력방안을 모색
- 현지 축협 및 농가방문
 - Nam sach 축협(Nam sach Breeding Co-operative) 및 회원 농가 방문을 통하여 베트남 지역 협동조합의 역할파악

2. 출장기간

- 2009년 7월 1일(수) ~ 7월 5일(일)(3박 5일) : 오세익, 강창용, 이대섭
- 2009년 7월 1일(수) ~ 7월 3일(금)(2박 3일) : 허 장

3. 출장자

-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대섭: 글로벌협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허 장: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연구위원

II. 세부일정

일시	일 정	비 고
7/1 (수)	○ 인천(10:35 KE5683) → 하노이 공항 도착 (13:05) → 호텔 이동	
	○ 현지 KOICA 직원과의 간담회(18:00)	- 현지 KOICA 소장, 부소장 - 베트남 사회·경제 동향, 기업체 진출 현황, 농촌지역 발전 상황, 농업·농촌 부문 협력 가능성, 향후 베트남 경제 성장 전망 등에 관한 논의
7/2 (목)	○ MOU 사전 회의(10:00~10:30) ○ MOU 체결 및 양 기관 소개(10:30~11:30) ○ 오찬(11:30~13:30) ○ 국제학술세미나(14:00~17:30) ○ 리셉션(17:30~21:30)	- MOU 체결, 협력방안, 세미나 진행 등 논의 - MOU 조인식: 양국 기관장, KREI 참석자, IPSARD 관계자 등 참석 - 발표자: 허장박사, Vu Trong Binh, 토론자: 강창용박사, 이대섭박사, Duong Ngoc Thi,
7/3 (금)	○ 하노이 → 캄보디아 프놈펜 ○ 하노이(09:00) → Nam sach 지역 축협사무 소 이동(11:00) ○ Nam sach 지역 축협소장과 간담회(11:00) ○ Nam sach 축협회원 축산농가 방문(14:00) ○ Nam sach(16:00) → Ha Long 이동	- 허 장 - Nam sach 지역 축협방문(Tran Duc Binh 소장과 간담회 개최) - Nam sach 축협회원 축산농가
7/4 (토)	○ Ha Long → Nam Sach 지역 수도작 농 가 방문(11:00) ○ Nam Sach(15:00) → 하노이 공항 이동 ○ 하노이 공항 출발(23:35 KE680)	- 농기계를 이용한 수도작 농가 면담
7/5 (일)	○ 인천 공항 도착(05:50)	

III. 주요 출장 결과

1. KOICA와의 업무협의회

■ 개요

- 일시: 2009년 7월 1일(수) 오후 18시~20:30
- 장소: 고궁(한식당)
- 참석자; KREI 원장 외 3인, KOICA 소장 이욱헌, 부소장 박홍식

※ 베트남 KOICA

- 소장; 이욱헌, 부소장; 박홍식
 - 현지 정규직 한국인 3명(소장, 부소장 2명), 계약직 2명
 - 현지 베트남인 12명
 - 베트남 내 내국인 80여명의 자원봉사자 활동중

■ 주요협의 내용

- (KOICA) 현재 추진 중인 KOICA 사업은 베트남 현지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본국에서 최종 사업자 선정을 함. 사업 제안서는 현지 제출시한이 7월 25일 까지임.
- (KREI) 현재 IPSARD는 KREI의 농업관측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측 기법에 관심이 높아 KREI에 2-3개월 체류하며 전수받기를 원하고 있음. 따라서 IPSARD에서 베트남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연수 사업계획서 형식의 사업제안서를 KOICA에 제출하면 지원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KOICA) KOICA 사업의 경우 위 연수과정을 이행토록 할 수 있는 방법은 Project 베이스로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장기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는 연수사업으로 시도하고 적절한 기간 IPSARD 관련 직원이 한국에 가서 연수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연수과정도 일반적인 연수와 특별연수과정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단기연수의 경우 3~4개월도 있음.
- (KREI) IPSARD 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KOICA) 내년 사업으로 ODA 사업자규모가 적은데도 중부 지방에 3,500만 달러가

소요되는 병원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올해 1,400만 달러가 투입되고, 내년에 2,000만 달러가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풍부한 상황은 아님. 그럼에도 요청하면 노력을 하겠음.

- (KREI) ODA 사업자금의 주요용도는 역시 저개발국의 빈곤퇴치가 아닐까 생각함. IPSARD 소장 Dang Kim Son 과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 KOICA 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길 바람.
- (KOICA) 해외에서 우리 농업의 발전 사례가 좋은 귀감이 되고 있음. 베트남에서도 새마을 운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배우려는 자세가 강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서 지원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함.
- (KREI) 무엇보다 KOICA의 관심에 감사함. 또한 이미 우리와 베트남 NIAPP과 MOU를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으로 2년간 새마을 운동을 여기에 접목시키는 사업경험이 축적되어있음. 다만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올해는 중단된 상황임. 앞으로 KOICA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좋은 결말이 있도록 노력할 것임.

2. MOU 체결 및 Seminar

1) MOU 체결

- 일시: 2009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베트남 IPSARD, 회의실
- 참석자
 - 한국; 원장 오세익, 기획조정실장 강창용, 아시아농업연구센터장 허 장, 이대섭 박사
 - 베트남; IPSARD 소장 Dang Kim Son, 부소장 Duong Ngoc Thi, 과학경영부 부장 Tran Thi Quynh, Ma, 과학경영부 프로그램머 Nguyen Vu Dieu Nga 외 20명
 - IPSARD(Institution of Policy & Strategy for Agriculture & Rural Development)는 농업·농촌발전부(MARD) 산하 정부연구소로 농업·농촌 관련 정부정책 및 전략 등을 수립하는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임. 따라서 MOU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관심 분야에 관하여 공동연구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을 합의함.

2) Seminar

■ 개요

- 일시: 2009년 7월 2일(목) 14:00~17:30
- 장소: 베트남 IPSARD 회의실
- 진행: 영어 사용
- 참석자;
 - 한국: 원장 오세익, 기획조정실장 강창용, 아시아농업연구센터장 허 장, 이대섭 박사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협동조합농촌개발국장 La Van Ly, NIAPP(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 국제협력부 부부장 Vu Thi Ngoc Tran, 연구원 Vuong Thuc Tran 외, IPSARD 소장 Dang Kim Son, 부소장 Duong Ngoc Thi, 과학경영부 부장 Tran Thi Quynh, Ma, 과학경영부 프로그래머 Nguyen Vu Dieu Nga 외 약 40여명 참석

■ 주제발표 및 토론

- 발표자
 - 허 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아시아농업연구센터 팀장) 30분
제목: Rural Development of Korea and its Implications on Rural Development of Vietnam
 - Vu Trong Binh(IPSARD, Director of Rural Development Center) 30분
제목: Govenment policy with regard to community based rural development
- 토론자
 - 한국 측: 강창용 박사, 이대섭 박사, 허 장 박사
 - 베트남측: 농림부 국장, NIAPP 국제 협력부 부장 Vu Thi Ngoc Tran, 연구원 Vuong Thuc Tran, Vu Trong Binh(발표자), 이외 참여자 4명
- 주요토론내용
 - <허장박사 발표에 대한 질의와 응답>
 - 질문1) 새마을운동 등 마을단위에서의 농촌개발에 따른 제도적 변화는 무엇이 있었는가?
(답)마을 이장과 달리 무급의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리더십이 강화

되었고, 기존의 여러 조직들(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이 활성화되어 마을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

- 질문2) 새마을운동 전후로 하여 행정구조의 변화가 있었는가?

(답)기본적으로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으나, 농업종사자 및 마을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음.

- 질문3) 농촌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지원은 있었는가?

(답)새마을운동은 정부가 시작한 상향식 접근(government-initiated bottom-up approach)이었으며, 따라서 민간부문보다는 정치적인 지원이 크게 작용하였음. 이는 도시, 농촌 모두 마찬가지였음.

- 질문4) 초기에 선진적 마을에 대하여 2천불을 지원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지원이 있었는가?

(답)1970년대 말까지 시멘트와 철근의 지원은 계속되었으며,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후원 역시 계속 있었음. 앞선 마을은 언론에서 크게 소개하여 주는 방식으로 마을간 경쟁을 유도하였음.

- 질문5) 1970년대 상향식 개발방식의 새마을운동이 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하향식으로 회귀하게 되었나?

(답)1980년대에 들어서 농촌인구의 감소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농촌개발에 대한 시급성과 효율성이 크게 강조되어 정부의 개입이 앞서게 되었으며, 새마을운동 자체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됨에 따라 민간의 자발성이 후퇴하는 결과가 되었음.

<강창용 박사 토론요지>

- 새마을 운동이 한국 농업을 변모시킨 중요한 정책 프로그램임. 그러나 새마을 운동의 방식이 반드시 베트남 농업발전에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것으로 생각함. 왜냐하면 두 나라 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임. 하나의 좋은 사례이기는 하나 유일한 대안은 아닐 것임.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하는 경우 농업에 여러 문제가 발생함. 한국의 경우 농촌의 과소화, 농업소득의 저위, 미래 농업에 대한 실망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고 베트남도 유사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음. 미리 해결방법을 강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경제 발전의 초창기에는 시장 경제보다 계획경제가 우수할 수도 있음. 특히 강한 리더십이 매우 중요함. 농업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님. 교육과 훈련도 중요한 발전요소임. 마지막으로 귀국의 경제와 농업이 발전하여 부국이 되길 바람.

<이대섭 박사 토론요지>

- 현재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단위별 발전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정책 목적이 불분명한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기회비용 및 정부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지역단위별 발전정책을 수행함에 따라 성공적인 지역정책의 모델을 개발하여 전파시키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함. 이 부분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도 유사점이 있어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 한국의 경험을 고려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오직 한국의 농업·농촌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함. 새마을 운동의 시기에 한국 경제 및 사회현황도 검토하여 베트남에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지역 축협 및 농가 방문

■ Nam Sach 지역 축협 방문

- 일시: 2009년 7월 3일(금) 11:00
- 장소: Nam Sach 지역 협동조합 사무실
- 면담자: Tran Duc Binh(소장)
- 주요 면담 내용
 - 1988년부터 소규모 농가들로 구성하여 조직된 협동조합으로 최근에 가입조건은 양돈 100두 이상을 보유한 농가로 제한하고 있어 협동조합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설립당시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재정 및 기술지원을 받아 활동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베트남 정부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 IPSARD로부터 직·간접적인 재정 및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 조직으로 최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육가공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어 회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현재 이 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은 153개의 농가로 규모가 확장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역할은 사료곡물(수입산)을 저가에 대량구매하여 회원농가들에게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임. 백신 보급, 생산라인을 증축할 예정이며 자체적인 도축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 협동조합은 지역내 7개의 소규모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산물은 이들 7

개 조합에서 수집하여 근처 하이퐁(Haiphong)시장에 전량 판매하고 있음.

- 협동조합 소장의 말에 따르면 모든의 MSY지수가 폐사된 새끼모돈을 포함하여 22-25마리로 높다고 함.
- 베트남은 대부분 태국과 카길로부터 사료곡물을 수입하기 때문에 향후 이 협동조합에서도 안정적인 사료곡물 구매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축산가공품의 안정성 문제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도입된 HACCP 시스템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계획임.

■ 축산농가 방문

○ 면담자; Vinh (48세), 인근농민 1인

○ 주요 면담 내용

- 축산농가 규모: 돼지와 계란을 생산하는 축산농가로 모돈 30마리 자돈이 200마리 정도라고 함. 산란계는 3,000수이며 하루에 한 마리당 2~3개의 계란을 생산함. 연간 총 매출액은 10억 VND(약 7천 500만 원), 이 가운데 농민의 연간 순수입은 3억 VND(한화 약 2천 3백만 원)에 이름. 현재 3명을 고용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4명)도 경영에 참여함. 이러한 수준은 매우 높은 소득으로 행복하다고 함.
- 경영애로: 처음 축산을 시작할 때 경영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함. 정부의 지원도 없었다고 함. 고생한 보람으로 지금의 축산규모를 이뤘고 불만이 없다고 함.

4. 수도작 농민 면담

■ 수도작 농민 면담

○ 일시: 2009년 7월 4일(토) 11:00

○ 장소: Nam Sach

○ 이름; Trong(25세)

- 보유농기계; 일제 구보다 중고를 구입하여 현재 4년 사용하였고 앞으로도 7년 정도는 더 사용할 것이라고 함. 중고 농기계는 6천만 VND(6백 50만원)를 지불하고 구입. 일본 구보다 제품으로 2륜구동임. 정확한 연식은 알 수 없으나 2륜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15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관련 부착기로 쟁기와 씨레를 갖고 있으며 철차륜(바퀴대용)은 철공소에서 제작하였다고 함. 농기계를 사용하는 데 고장의 문제는 없으며 부품은 잘 공급되어 어려움이 없다고 함.
- 소득; 수도작 농가의 경영규모는 1ha 정도임. 1년에 2기작을 하는데 회당 생산

량을 ha당 조곡 1톤정도(통역의 오류가 아닌가 여김, 베트남 평균 1모작 당 약 2t/ha(USDA 통계))라고 함. 그리고 농가판매시 kg당 7,000 VND(약 5천 원)를 받기 때문에 연간 수입은 약 1,400만 VND(약 1천 만 원 정도)임. 트랙터 작업은 하루 5ha 정도를 하며 수입은 90만 VND(6만 원)임. 월 25일 정도 작업을 한다고 하면 월 수입은 2,250만 VND(약 1백 50만 원), 5개월 작업시 11,250만 VND(약 7백 50만 원)정도로 상당한 수입이라고 함.

- 기타: 경운기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며, 승용으로 만들어져 있음. 한국 농기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음. 경지정리가 약간 되어있는 곳도 있는데, 필지당 규모가 약 200평 정도에 불과함. 농용수로가 어느 정도 정비된 곳도 눈에 띄었지만 경지정리가 미흡한 평야가 많았음. 농용수 확보를 위해 웅덩이를 만들어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현재 일부는 수확이 끝났고, 일부는 이앙을 하고 있었음. 또한 일부는 경운작업을 하는 등 수도작의 모든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2모작시 휴경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